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남주, 박미라*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Nam Joo Je, Meera Park*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전공적응과 현장실습적응 및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시, J시 간호학과 3.4학년 2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C 대학교 IRB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였고, 자료분석은 IBM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은 평균 3.58점, 대학적응은 평균 3.33점, 죽음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5점,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평균 3.38점이었다. 대상자의 학과적응과 현장실습적응($r=.56, p<.001$), 죽음에 대한 부정도($r=-.15, p=.016$), 생명존중의지($r=.33,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r=.48, p<.001$), 생명존중의지($r=.16, p=.009$)와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학적응과 생명존중의지($r=.3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적응이었으며($F=171.67, p<.001$), 이 모형은 67.5%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해 학부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인식 변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생명존중의지 프로그램 실시 후 간호학과 적응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as well as to establish basic data for adaptation of the major, adaptation to field practice, and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dea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2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living in C, J city. Data were collected after approval from the IRB of C University on April 30, 2018 and analyzed by the mean values, percentag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21.0. The subjects' field practice adaptation was 3.58, college adaptation was 3.33, awareness of death was 3.15 and department adaptation was 3.38.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department adaptation and field practice adaptation ($r=0.56, p<0.001$), negative of death ($r=-0.15, p=0.016$), respect for life ($r=0.33, p<0.001$) of nursing student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college adaptation ($r=0.48, p<0.001$) and respect for life ($r=0.16, p=0.009$) of nursing students and between college adaptation and respect for life ($r=0.32, p<0.001$) of nursing students. The factors that have effect on the department adaptation of the subjects; As a factor influencing the department adaptation, department adaptation,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respect for life were explained by 67.5% ($F=171.67, p<0.001$). Therefore, a positive attitude toward death and a curriculum related to change in perception must be provided to undergraduates to change the attitude toward death. It is also suggested that research regarding nursing department adaptation effects be conducte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to improve respect for life.

Keywords : Adaptation, Awareness, College, Death, Nursing

*Corresponding Author : Meera Park(Changshin Univ.)

Tel: +82-55-250-3173 email: minerva32@cs.ac.kr

Received July 16, 2018

Accepted October 5, 2018

Revised (1st July 26, 2018, 2nd August 16, 2018, 3rd September 6, 2018)

Published October 31, 2018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적응정도가 이후의 직업선택과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1]. 간호대학생은 학과 수업과 현장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고 간호사 직업에 대한 본인의 적성과 직업선택에 대한 확신 및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데[2],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수능점수에 따라 대학 및 학과를 지원하거나[3],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로 인해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가 많아 학과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간호학 특성상 타 과에 비해 학과 공부량이 많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실습시 절차수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크다[4].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향후 간호사 직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신념과 태도형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그들의 긍정적인 전문직관이나 자아개념 형성을 방해할 수 있고[5] 졸업 후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이 중요하다[6].

간호대학생은 타과 학생에 비해 전공수업이나 현장실습을 하면서 죽음을 더 많이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간호대학생은 죽음과정과 죽음 후 수행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학과생활적응과 현장실습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7-9]. 죽음에 대한 인식이 불확실한 경우,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부담감이나 공포 및 불안감 등을 느낀다고 하였다[10]. 또한, 현장실습에 앞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생의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을 확립한다면, 현장실습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현장실습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4]. 또한, Kim 등[11]은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임종환자 간호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고하여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간호사는 임종환자를 간호할 때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생을 조용히 끝마칠 수 있도록 간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죽음과 죽음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죽음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12].

2017년 12월 국립암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기대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3%로[13] 우리나라의 암환자 및 장기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가 임종환자를 돌보는 기회와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간호사는 다른 의료진보다 임종환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14], 임종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15]. 간호제공자는 임종환자에 대한 간호부담감과 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고,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긍정적인 죽음과 호의적인 임종간호 태도확립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16]. 임종간호에 앞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인식 변화와 관련된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17,18]. 간호사가 되기 전 대학생 시기부터 미리 관련교육을 제공한다면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인식변화를 도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취업 후 환자들의 간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죽음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관련 환자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이 요구된다[18].

선행연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의 관계[19], 삶의 만족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20]. 또한, 영적안녕감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 종교생활과 삶의 만족도와 죽음태도의 관계 연구[20] 등이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경험으로 질적 연구 몇 편이 있을 뿐[21-23] 전반적인 학과적응과 대학적응,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전공적응과 현장실습적응 및 죽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학생들과 현장실습, 대학적응 및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적응을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와 J대학 간호학과 3.4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협조할 것을 동의한 자
- 2) 질문지 내용을 읽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3)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자

표본수 결정은 G*power 3.10 프로그램[24]을 이용하여 효과크기(effect size) .2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21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260명을 표집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25]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성별, 학년, 종교, 동아리 활동여부, 거주환경, 경제력, 간호학과 선택이유, 지남학기 학점, 면담횟수,

성격유형, 대인관계 갈등, 현장실습 만족도, 전공만족도, 호스피스교육경험, 임종경험, 현장실습 임종경험 등 총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현장실습적응

현장실습적응은 Park [2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9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실습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alpha=.73$ 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3.3 대학적응2

대학적응은 Jung과 Park [27]의 대학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대인관계,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사회체험의 5개 하위 영역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alpha=.70-.86$ 의 분포를 보였으며, 전체 도구의 Cronbach's $\alpha=.86$ 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87$ 이었다.

2.3.4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은 Cha [28]가 개발한 죽음에 대한 인식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죽음에 대한 긍정도, 부정도, 불안, 관심도, 생명존중의지의 5개 하위영역의 3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Cha [28]의 연구에서는 죽음에 대한 긍정도 Cronbach's $\alpha=.79$, 부정도 Cronbach's $\alpha=.71$, 불안 Cronbach's $\alpha=.86$, 관심도 Cronbach's $\alpha=.85$ 이었다. 생명존중의지는 Cronbach's $\alpha=.75$ 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죽음에 대한 긍정도 Cronbach's $\alpha=.79$, 부정도 Cronbach's $\alpha=.74$, 불안 Cronbach's $\alpha=.79$, 관심도 Cronbach's $\alpha=.81$ 이었다. 생명존중의지는 Cronbach's $\alpha=.63$ 이었다.

2.3.5 간호학과 학과적응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Park [2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92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3이었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C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3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C와 J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 후 승인받고, 해당학과와 3,4학년 학생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및 연구참여시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간호학과 3,4학년 2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5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및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및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차이는 t-test, 일원변량분석,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및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2)

Variables	Categories	n(%) or Mean±SD
Gender	Male	21(8.3%)
	Female	231(91.7%)
Age		21.48±2.05
Grade	Junior	115(45.6%)
	Senior	137(54.4%)
Circles activity	Yes	61(24.2%)
	No	191(75.8%)
Religion	Christianity	42(16.7%)
	Catholic	7(2.8%)
	Buddhist	30(11.9%)
Residence type	Atheism	173(68.6%)
	With parents	129(51.2%)
	Dormitory	100(39.7%)
Economic ability	Alone	23(9.1%)
	Top	15(6.0%)
	Medium	218(86.5%)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Duplicate answer)	Down	19(7.5%)
	Ease of employment	102(40.5%)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14(5.5%)
	Recommended	46(18.3%)
Last semester grade	Voluntary motivation	66(26.2%)
	Multiple reasons including voluntary motivation	17(6.7%)
	Multiple reasons without voluntary motivation	7(2.8%)
Personality	< 3.5	128(50.8%)
	≥ 3.5	124(49.2%)
	Extrovert	43(17.0%)
Number of consultations (Semester)	Introspective	42(16.7%)
	Mixed	167(66.3%)
Huma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2.28±2.33
	Not at all	81(32.1%)
	Sometimes.	159(63.1%)
Satisfaction of field practice	Frequently	12(4.8%)
		6.53±1.78
Nursing major satisfaction		6.25±1.84
	Hospice education experience	Yes
	No	213(84.5%)

Family or acquaintance death experience	Yes	164(65.1%)
	No	86(34.9%)
Death experience of field practice	Yes	113(44.8%)
	No	139(55.2%)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231명(91.7%), 남성 21명(8.3%)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1.48세이었다. 학년은 3학년 115명(45.6%), 4학년 137명(54.4%)이었다. 동아리활동을 하는 경우는 61명(24.2%)이었다. 종교의 경우 무교 173명(68.6%), 기독교 42명(16.7%), 불교 30명(11.9%), 가톨릭교 7명(2.8%) 순이었으며,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29명(51.2%), 기숙사 100명(39.7%), 자취 19명(9.1%) 순이었다. 경제력은 상 15명(6.0%), 중 218명(86.5%), 하 19명(7.5%)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취업이 용이함’ 102명(40.5%), ‘자발적 동기’ 66명(26.2%), ‘주위 권유’ 46명(18.3%), ‘성적에 맞춰서’ 14명(5.6%) 순이었다. 자발적 동기를 포함한 중복응답은 17명(6.7%), 자발적 동기가 없는 중복 응답은 7명(2.8%)로 나타났다.

지난 학기성적 3.5점 미만은 128명(50.8%)이며, 3.5점 이상은 124명(49.2%)이었다. 인격형태는 외향적 인격 43명(17.1%), 내성적 인격 42명(16.7%), 혼합적 인격 167명(66.3%)이었다. 대인관계 갈등경험은 ‘가끔있다’가 63.1%로 가장 많았고, ‘전혀 없다’가 31.7%, ‘자주있다’가 4.8%순이었다. 학기당 면담횟수는 평균 2.28회이었다. 실습만족도는 평균 6.53점(10점 만점)이며, 전공만족도는 평균 6.25점(10점 만점)이었다. 대상자의 84.5%가 임종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대상자의 65.1%가 가족이나 지인의 임종경험이 있었다. 임상현장에서 임종경험은 ‘있다’ 113명(44.8%), ‘없다’ 139명(55.2%)이었다 (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적응과 대학 적응 및 간호학과 학과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및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Table 2과 같다.

현장실습적응은 동아리 활동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8, p=.038$). 대인관계 갈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89, p=.008$), 사후검증 결과, ‘전혀 없다’가 ‘자주있다’ 보다 현장실습적응이 높았다. 대학적응은 학년($t=-2.45, p=.015$)과, 동아리 활동여

부($t=2.92,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7, p<.001$). 사후검증 결과, ‘자발적 동기’로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대상자가 ‘취업이 용이’하여 선택한 대상자보다 대학적응이 높았으며, 성적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대상자보다 더 높았다. 대학적응은 지난학기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5, p=.002$). 대학적응은 인격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7, p=.002$), 사후 검증결과, 외향적 인격은 내성적 인격보다 대학적응이 높았고, 혼합적 인격의 경우 내성적 인격의 경우보다 대학적응이 높았다. 대인관계 갈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47, p=.001$), 사후검증 결과, ‘전혀 없다’가 ‘자주 있다’보다 유의하게 대학적응이 높고 ‘가끔 있다’가 ‘자주 있다’ 보다 유의하게 대학적응이 높았다.

간호학과 적응은 전공을 선택한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4, p<.001$). 사후검증 결과, ‘자발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상자가 ‘취업이 용이’하여 선택한 대상자보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이 높았다. 지난학기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4.28, p<.001$), 외향적 인격은 내성적 인격보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이 높았다($F=4.56, p=.011$). 대인관계 갈등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46, p<.001$), 사후검증 결과, ‘자주있다’가 ‘가끔있다’, ‘전혀 없다’ 보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이 낮았다(Table 2).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표 3-1과 3-2와 같다.

죽음에 대한 긍정도는 인격형태($F=5.25, p=.006$), 대인관계 갈등경험($F=3.27,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죽음에 대한 부정도는 종교($F=2.68, p=.047$), 거주형태($F=8.24, p<.001$), 경제력($F=5.24, p=.006$), 인격형태($F=4.13, p=.01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1).

죽음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명존중의지는 동아리 활동($t=2.23, p=.026$), 종교($F=4.05, p=.008$), 인격형태($F=5.89, p=.003$), 대인관계 갈등경험($F=4.27, p=.01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2).

Table 2. Nursing department adaptation,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college adapt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2)

Variables	Categories	Department adaptation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37±0.45	-0.10 (.915)	3.56±0.47	-0.29 (.770)	3.41±0.53	0.77 (.441)
	Female	3.38±0.38		3.59±0.47		3.32±0.47	
Grade	Junior	3.35±0.35	-0.95 (.342)	3.64±0.43	1.77 (.077)	3.25±0.43	-2.45 (.015)
	Senior	3.40±0.42		3.54±0.49		3.40±0.50	
Circles activity	Yes	3.46±0.42	1.86 (.063)	3.69±0.49	2.08 (.038)	3.49±0.48	2.92 (.004)
	No	3.35±0.37		3.55±0.46		3.28±0.47	
Religion	Christianity	3.45±0.45	0.60 (.615)	3.62±0.56	0.13 (.941)	3.48±0.50	2.41 (.067)
	Catholic	3.39±0.48		3.63±0.37		3.56±0.69	
	Buddhist	3.33±0.38		3.57±0.45		3.26±0.47	
	None	3.37±0.37		3.58±0.45		3.30±0.46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37±0.38	0.21 (.810)	3.61±0.47	0.59 (.554)	3.32±0.46	0.04 (.955)
	Dormitory	3.39±0.41		3.55±0.48		3.34±0.49	
	Alone	3.42±0.36		3.63±0.44		3.32±0.55	
Economic ability	Top	3.55±0.48	2.34 (.098)	3.70±0.42	0.68 (.503)	3.49±0.54	1.15 (.316)
	Medium	3.38±0.37		3.58±0.45		3.33±0.45	
	Down	3.26±0.51		3.51±0.68		3.24±0.73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Duplicate answer)	Ease of employment	3.30±0.35 ^a	5.14 ($<.001$) a<d	3.50±0.42	1.68 (.139)	3.21±0.46 ^a	5.37 ($<.001$) a<d, b>d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3.32±0.57 ^b		3.57±0.61		3.09±0.64 ^b	
	Recommended	3.36±0.35 ^c		3.69±0.49		3.37±0.51 ^c	
	Voluntary motivation	3.57±0.36 ^d		3.67±0.43		3.56±0.38 ^d	
	Multiple reasons including voluntary motivation	3.33±0.41 ^e		3.59±0.56		3.30±0.48 ^e	
	Multiple reasons without voluntary motivation	3.13±0.34 ^f		3.43±0.65		3.23±0.35 ^f	
Last semester grade	< 3.5	3.28±0.36	-4.26 ($<.001$)	3.60±0.49	0.45 (.650)	3.24±0.48	-3.15 (.002)
	≥ 3.5	3.48±0.39		3.57±0.44		3.43±0.46	
personality	Extrovert	3.51±0.40 ^a	4.56 (.011) a>b	3.73±0.47	2.64 (.073)	3.53±0.41 ^a	6.57 (.002) a>c, b<c
	Introspective	3.25±0.27 ^b		3.56±0.37		3.16±0.44 ^b	
	Mixed	3.38±0.40 ^c		3.55±0.48		3.32±0.49 ^c	
Huma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Not at all	3.44±0.36 ^a	8.46 ($<.001$) a>c, b>c	3.68±0.47 ^a	4.89 (.008) a>c	3.35±0.46 ^a	7.47 (.001) a>c, b>c
	Sometimes.	3.39±0.38 ^b		3.56±0.44 ^b		3.36±0.45 ^b	
	Frequently	2.95±0.45 ^c		3.26±0.69 ^c		2.82±0.73 ^c	
Hospice education experience	Yes	3.36±0.51	-0.34 (.730)	3.57±0.52	-0.27 (.785)	3.36±0.59	0.40 (.685)
	No	3.38±0.36		3.59±0.46		3.33±0.46	
Family or acquaintance death experience	Yes	3.39±0.41	0.31 (.756)	3.58±0.49	-0.02 (.797)	3.34±0.50	0.50 (.618)
	No	3.37±0.35		3.59±0.42		3.31±0.44	
death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42±0.40	1.37 (.172)	3.62±0.49	1.15 (.249)	3.40±0.50	2.09 (.037)
	No	3.35±0.37		3.55±0.45		3.27±0.46	

Table 3-1. Awareness of death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2)

Variables	Categories	Awareness of death					
		Positive of death		Negative of death		Anxiety about death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19±0.67	-0.73 (.463)	3.35±0.69	-0.49 (.621)	2.75±0.83	-1.07 (.282)
	Female	3.29±0.56		3.41±0.54		2.95±0.82	
Grade	Junior	3.31±0.57	0.70 (.479)	3.41±0.52	-0.04 (.966)	2.92±0.83	-0.18 (.855)
	Senior	3.25±0.56		3.41±0.58		2.94±0.81	
Circles activity	Yes	3.16±0.57	-1.79 (.073)	3.32±0.58	-1.37 (.170)	3.06±0.89	1.43 (.151)
	No	3.31±0.56		3.44±0.54		2.89±0.79	
Religion	Christianity	3.11±0.48		3.21±0.64		2.85±0.88	
	Catholic	3.21±0.63	1.88 (.133)	3.31±0.91	2.68 (.047)	3.05±0.84	0.78 (.505)
	Buddhist	3.42±0.63		3.36±0.47		3.13±0.89	
	None	3.30±0.57		3.47±0.51		2.91±0.79	
Residence type	With parents	3.28±0.59		3.53±0.49 ^a	8.24 ($<.001$)	2.98±0.83	0.39 (.672)
	Dormitory	3.27±0.55	0.04 (.954)	3.32±0.58 ^b	$<.001$ a>b>c	2.89±0.79	
	Alone	3.31±0.54		3.10±0.59 ^c		2.86±0.86	
Economic ability	Top	3.36±0.62		3.14±0.56 ^a	5.24 (.006)	2.89±0.88	0.58 (.556)
	Medium	3.27±0.56	0.22 (.799)	3.45±0.53 ^b	$b>c$	2.95±0.81	
	Down	3.32±0.63		3.12±0.68 ^c		2.74±0.88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Ease of employment	3.31±0.60		3.44±0.55		2.87±0.73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3.23±0.43	0.44 (.821)	3.24±0.53	1.82 (.108)	2.84±1.00	1.11 (.352)
	Recommended	3.33±0.52		3.38±0.50		2.87±0.65	
	Voluntary motivation	3.24±0.56		3.38±0.58		3.06±0.91	
	Multiple reasons including voluntary motivation	3.25±0.75		3.38±0.49		2.88±1.08	
	Multiple reasons without voluntary motivation	3.05±0.30		3.97±0.57		3.45±0.86	
Last semester grade	< 3.5	3.29±0.57	0.22 (.821)	3.40±0.54	-0.28 (.772)	2.87±0.75	-1.22 (.222)
	≥ 3.5	3.27±0.57		3.42±0.56		3.00±0.87	
personality	Extrovert	3.07±0.55 ^a		3.21±0.59 ^a	4.13 (.017)	2.72±0.62	2.07 (.128)
	Introspective	3.46±0.54 ^b	5.25 (.006)	3.55±0.55 ^b	$a<b$	2.90±0.75	
	Mixed	3.29±0.57 ^c	$a<b$	3.43±0.53 ^c		3.00±0.87	
Huma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Not at all	3.15±0.64		3.39±0.50		2.80±0.82	2.14 (.120)
	Sometimes.	3.34±0.53	3.27 (.039)	3.41±0.56	0.44 (.639)	3.01±0.78	
	Frequently	3.39±0.43		3.55±0.78		2.73±1.10	
Hospice education experience	Yes	3.31±0.59	0.37 (.705)	3.36±0.59	-0.61 (.538)	2.93±0.84	-0.03 (.974)
	No	3.27±0.57		3.42±0.54		2.93±0.81	
Family or acquaintance death experience	Yes	3.32±0.61	1.62 (.105)	3.41±0.57	0.11 (.907)	2.92±0.85	-0.21 (.833)
	No	3.20±0.48		3.40±0.51		2.95±0.76	
Death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3.23±0.55	-1.10 (.269)	3.41±0.61	0.05 (.956)	2.92±0.83	-0.23 (.816)
	No	3.31±0.58		3.41±0.50		2.94±0.81	

Table 3-2. Awareness of death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52)

Variables	Categories	Awareness of death			
		Concern of death		Respect for li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2.63±1.08	0.66	3.33±0.69	0.76
	Female	2.51±0.78	(.509)	3.21±0.65	(.445)
Grade	Junior	2.49±0.73	-0.46	3.15±0.60	-1.52
	Senior	2.54±0.87	(.640)	3.28±0.69	(.128)
Circles activity	Yes	2.52±0.90	0.02	3.39±0.71	2.23
	No	2.52±0.78	(.978)	3.17±0.63	(.026)
Religion	Christianity	2.54±0.84		3.54±0.78 ^a	
	Catholic	2.28±0.68	0.20 (.890)	3.23±0.79 ^b	4.05 (.008)
	Buddhist	2.52±0.86		3.16±0.59 ^c	a>d
	None	2.53±0.80		3.16±0.61 ^d	
Residence type	With parents	2.53±0.79	0.04	3.17±0.63	1.02
	Dormitory	2.50±0.80	(.953)	3.29±0.65	(.359)
	Alone	2.54±1.00		3.24±0.73	
Economic ability	Top	2.54±0.92		3.38±0.57	
	Medium	2.50±0.79	0.85 (.426)	3.22±0.64	0.65 (.520)
	Down	2.75±0.94		3.13±0.88	
Motivation of choosing nursing major	Ease of employment	2.49±0.84		3.11±0.60	
	According t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scores	2.40±0.90	0.36 (.870)	3.05±0.66	2.29 (.046)
	Recommended	2.46±0.64		3.27±0.62	
	Voluntary motivation	2.60±0.86		3.36±0.70	
	Multiple reasons including voluntary motivation	2.61±0.80		3.50±0.53	
	Multiple reasons without voluntary motivation	2.68±0.87		2.95±0.96	
Last semester grade	< 3.5	2.45±0.77	-1.46	3.17±0.63	-1.35
	≥ 3.5	2.60±0.84	(.144)	3.28±0.67	(.177)
personality	Extrovert	2.36±0.77	1.25	3.49±0.71 ^a	5.89
	Introspective	2.63±0.87	(.287)	3.02±0.64 ^b	(.003)
	Mixed	2.54±0.80		3.21±0.62 ^c	a>b, a>c
Human relationship conflict experience	Not at all	2.39±0.78	1.61	3.27±0.60 ^a	4.27
	Sometimes	2.58±0.81	(.201)	3.24±0.66 ^b	(.015)
	Frequently	2.65±1.02		2.69±0.75 ^c	a>b>c
Hospice education experience	Yes	2.68±0.81	1.35	3.21±0.65	-0.15
	No	2.49±0.81	(.178)	3.23±0.65	(.881)
Family or acquaintance death experience	Yes	2.58±0.85	1.53	3.28±0.67	1.93
	No	2.41±0.72	(.126)	3.11±0.60	(.054)
Death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2.52±0.89	-0.05	3.31±0.66	1.88
	No	2.52±0.75	(.954)	3.15±0.64	(.061)

3.4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 정도는 Table 4과 같다.

죽음에 대한 인식정도 중 하부요인인 죽음에 대한 긍정도는 평균 3.28점(5점 만점), 부정도는 평균 3.41점(5점 만점), 불안은 평균 2.93점(5점 만점), 관심도는 평균 2.52점(5점 만점), 생명존중의지는 평균 3.22점(5점 만점)이었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평균 3.38점(5점 만점)이었고, 현장실습적응은 평균 3.58점(5점 만점), 대학적응은 평균 3.33점(5점 만점)이었다(Table 4).

Table 4. Degree of department adaptation,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n=252)

Item	Range	Min	Max	Mean±SD
Department adaptation	1-5	1.87	4.40	3.38±0.39
Field practice adaptation	1-5	1.82	4.94	3.58±0.47
College adaptation	1-5	1.32	5.00	3.33±0.48
Awareness of death				
Positive of death	1-5	1.60	5.00	3.28±0.57
Negative of death	1-5	1.80	4.80	3.41±0.55
Anxiety about death	1-5	1.00	5.00	2.93±0.82
Concern of death	1-5	1.00	5.00	2.52±0.81
Respect for life	1-5	1.33	5.00	3.22±0.65

3.5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 간호학과 학과적응과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현장실습($r=.56, p<.001$)과 대학적응($r=.79, p<.001$), 생명존중의지와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3, p<.001$), 죽음에 대한 부정도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15, p<.016$).

현장실습적응은 대학적응($r=.48, p<.001$) 및 죽음에 대한 인식 중 생명존중의지($r=.16, p=.009$)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적응은 죽음에 대한 부정도($r=-.15, p=.016$)와 역상관관계가 있으며, 생명존중의지($r=.32, p<.001$)와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죽음에 대한 긍정도는 죽음에 대한 관심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r=.23, p<.001$), 죽음에 대한 부정도는 죽음에 대한 불안($r=.31, p<.001$) 및 죽음에 대한 관심과 순 상관관계($r=0.16, p=.009$)가 있었고, 생명존중의지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21, p=.001$). 죽음에 대한 불안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r=.48, p<.001$), 생명존중의지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r=-.15, p=.012$)(Table 5).

Table 5. Correlation between department adaptation,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positive of death, negative of death, anxiety about death, concern of death and respect for life (N=252)

	(1)	(2)	(3)	Awareness of death				
				(4)	(5)	(6)	(7)	(8)
<i>r(p)</i>								
Department adaptation (1)	1							
Field practice adaptation (2)	.56 ($<.001$)	1						
College adaptation(3)	.79 ($<.001$)	.48 ($<.001$)	1					
Positive of death (4)	-.08 (.184)	-.02 (.723)	-.05 (.406)	1				
Negative of death (5)	-.15 (.016)	-.06 (.282)	-.15 (.016)	.06 (.333)	1			
Awareness of death								
Anxiety about death (6)	.05 (.375)	-.05 (.377)	.10 (.106)	.001 (.981)	.31 ($<.001$)	1		
Concern of death (7)	-.09 (.116)	-.11 (.060)	-.05 (.388)	.23 ($<.001$)	.16 (.009)	.48 ($<.001$)	1	
Respect for life (8)	.33 ($<.001$)	.16 (.009)	.32 ($<.001$)	-.01 (.812)	-.21 (.001)	-.15 (.012)	-.07 (.241)	1

3.6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학과 학과적응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현장실습적응,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부정도, 생명존중의지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69-1.0, VIF 1.43-1.00으로, 공차 한계가

0.1이상, 분산팽창지수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의 경우 $d=1.808$ 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여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간호학과 학과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적응($\beta=.530,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적응($\beta=.194, p<.001$), 생명존중의지($\beta=.049, p=.034$) 순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67.5%이었다($F=171.67, p<.001$)(Table 6).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department adaptation (N=252)

	β	t	p	R ²	F	p
College adaptation	.530	15.04	<.001	.628	421.26	<.001
Field practice adaptation	.194	5.61	<.001	.669	251.68	<.001
Respect for life	.049	2.12	.034	.675	171.67	<.001

4. 논의

본 연구는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현장실습적응은 평균 4.94점(5점만점)이고, 동아리 활동여부와 대인관계갈등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 변수를 연구한 양적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현장실습시 간호대상자로부터 거부를 경험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 현장실습이 어렵다고 보고한 연구 [21,29]를 미루어 볼 때, 대인관계 갈등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적응이 힘들어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대인관계 갈등 여부와 대인관계 갈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현장실습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되며, 현장실습적응을 돕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제공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도구는 다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적응점수가 높아졌다고 보고한 Han [3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학교생활을 오래했으므로 대학에 대

한 적응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수업량이 많고 현장실습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적응의 경우 지원동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발적 동기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31,3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동기화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서도 적응을 잘 하는 것을 볼 때 입학초기부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면, 대학적응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아리활동 여부, 대인관계 갈등 경험, 학기당 면담횟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적응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 [34,35]와 유사한 결과로 대인관계가 좋을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지지체계가 있어,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대학적응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와 학교성적, 교우관계가 대학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Oh [3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대학적응에 대인관계와 전공에 대한 만족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인식 중 긍정도는 평균 3.28점, 부정도는 평균 3.41점, 불안은 2.93점, 관심도는 3.41점, 생명존중의지는 3.22점으로 세부항목 중 부정도의 정도가 가장

높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7]의 연구에서는 하위영역 중 죽음에 대한 긍정점수가 가장 높아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간호사의 경우 환자의 죽음을 접하고 죽음에 대해 인식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보다 환자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드물어 죽음의 부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죽음인식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Lee와 Kim [38]는 교육 후 죽음에 대한 인식 중 긍정적 인식은 차이가 있었으나, 부정적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관련 교육이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되어 죽음을 경험하기 전 미리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한다면 긍정적인 죽음인식과 현장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학과 학과적응은 평균 3.38점으로 대학적응과 유사하게 학년이 높고, 외향적 성격이고, 대인관계 갈등경험이 낮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연구 결과[33,36]와 같이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생활을 오래해서 학교적응정도가 높아졌으며, 외향적인 성격으로 타인에게 다가가면서 대인관계가 원활해지면서 적응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과 학과적응 역시 전공만족도와 현장실습적응이 높고, 지난학기 성적이 좋으며, 본인이 원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경우 적응정도가 높았는데, 이 역시 대학적응의 경우와 유사하며 선행연구[30]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전공만족과 학교성적이 높으면서 학과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적응정도가 높은 것으로 유추되며, 학과적응 역시 대인관계가 적응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간호학과 학과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적응이고,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적응과 생명존중의지 순이었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에 대한 양적연구가 드물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적응이 높은 경우 학과적응정도가 높다고 [30], 현장실습적응 정도가 좋아지고[21],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도와줄 수 있다면[37] 학과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학과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간호대학생에게 대인관계향상 프로그램과 긍정적인 죽음인식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추후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과 현장에서의 적응

및 긍정적인 죽음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상자의 현장실습적응과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학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학과적응과 현장실습, 대학적응,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간호학과 학과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적응이고, 그 다음으로 현장실습적응과 생명존중의지였다.

간호학과 학과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인 대학적응을 돕기 위해서 효과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내용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학과성적 향상과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스터디그룹이나 멘토-멘티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과적응에 도움이 되고, 간호사로서의 긍정적인 전문직관 형성과 현장에서의 적응 및 긍정적인 죽음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학과적응향상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과적응향상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 지방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무리가 있다. 추후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 312-322, 2012.
- [2]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417-426, 2014.
DOI: <http://www.earticle.net/article.aspx?sn=237221>

- [3] S. J. Kim, H. K. Moon. "Status and Consciousness of Freshman year 2004". The Journal of creativity Development Research. vol.8, pp.1-48. 2005
- [4] S. N. Kim, H. J. Kim, S. O. Choi, "Effects of a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Program Including Meaning in Life on Attitudes Toward End-of-Life Care and Meaning in Life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454-463, 2011.
- [5]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 Research Policy, vol.12, pp.46-51, 2007.
- [6]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49-557, 2013.
- [7] S. H. Kim, D. H. Kim, H. M. Son,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4, no.3, pp.144-151, 2011.
- [8] S. Y. Jung, E. K. Lee, B. H. Kim, J. H. Park, M. K. Han, I. K. Kim,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pp.168-177, 2011.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48521>
- [9] A. E. Stewart, J. H. Lord, D. L. Mercer, "A Survey of Professional's Training and Experience in Delivering Death Notifications", Death Study, vol.27, no.4, pp.611-613. 2000.
- [10] M. S. An, K. J. Lee. "Awareness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Terminal Care among Geriatric Hospit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7, no.3, pp.122-133, 2014. DOI: <http://scholar.ndsl.kr/schDetail.do?cn=JAKO201426059105111>
- [11]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vol.10, no.1, pp.1-9, 2010.
- [12] E. Hong, M. Jun, E. S. Park, E. Ryu, "Death Perceptions,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 Death in Oncology Nurses", Asian Oncology Nursing, vol.13, pp.265-272, 2013.
- [13]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Korean National Cancer Screening Guideline for Seven Major Cancers [Internet]. Goyang: National Cancer Information Center; 2015 [cited 2018 Apr 24]. Available from: https://www.cancer.go.kr/lay1/bbs/SIT674C680/B/26/view.do?article_seq=20969
- [14] S. N. Kim, S. O. Choi, "Nurses' Death Anxiety and Spiritualit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101-110, 2010.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346302>
- [15] S. H. Kim, D. H. Kim,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eath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2, no.3, pp.277-286, 2015.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04742>
- [16] Y. W. Woo, K. H. Kim, K. S. Kim, "Death Anxiety and Terminal Care Stress among Nurses and the Relationship to Terminal Care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ol.16, no.1, pp.33-41, 2013. DOI: <https://doi.org/10.14475/kjhpc.2013.16.1.033>
- [17] H. J. Lee,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9, pp.88-95, 2013.
- [18] H. R. Kim, "Attitude towards Death, Stress and Attitude on the Terminal Care among Medical Ward Nurses with Terminal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4.
- [19] E. Y. Yu, Y. J. Yang, E. Y. Jung, "Attitudes toward Death Awareness among Department of Health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5, pp. 241-251,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5.241>
- [20] K. H. Kim, K. D. Kim, H. S. Byun, B. Y. Chung,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Asian Oncology Nursing, vol.10, no.1, pp.1-9, 2010.
- [21] M. S. Koh. "The Observational Experience of Labor and Delivery by Student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27, no.4, pp.892-900. 1997.
- [22] M. S. Suh.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0, no.4, pp.686-698. 2001.
- [23] Y. J. Choi. "Therapeutic Effects of Ojungyousik Meditation on Mental Health Stat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12. no.2, pp.127-135. 2006.
- [24]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 1149-1160, 2009. DOI: <http://doi.org/10.3758/BRM.41.4.1149>
- [25] E. H. Kim, E. J. Lee, "Effects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39, no.1, pp.1-9, 2009. DOI: <https://doi.org/10.4040/jkan.2009.39.1.1>
- [26] S.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7
- [27]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69-92, 2009.
- [28] Y. R. Cha. (2006). "A Study on the Nurses' Attitude to Death in Korea - Centering on University Hospital in Jeollabuckdo Province -".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Iksan.
- [29] S. M. Kim. (2017).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ctiveness in Clinical Education”.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4, No.1, pp.32-36, 2017.

- [30] M. H. Han. “Factors Affecting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2, no.1, 2017.
DOI: <https://doi.org/10.21032/jhis.2017.42.1.36>
- [31] Y. R. Chong, Y. H. Lee, “Affecting Factors of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3, no.4, pp.389-397, 2017.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7.23.4.389>
- [32] H. J. Jung, Cho Chung HI. Effect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12;21(3):188-196 (Korean)
- [33] J. H. Park, Y. G. Le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Femal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or Trus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7, pp.831-844, 2016.
DOI: <http://www.riss.kr/link?id=A101969481>
- [34] M. K. Lee, S. H. Lim,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Burnout, Stress Coping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7, no.6, pp.521-534,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6.74>
- [35] I. S. Byun. “Health Locus of Control for College Students Specializing in Dancing and Research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17, no.1, pp.127-137, 2003.
- [36] Y. J. Oh,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7, pp.307-317,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7.307>
- [37] G. H. Ko, I. S. Cho, “Attitudes towards Death and Euthanasia among Nurses and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3, pp.229-240, 2015.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36382>
- [38] Y. J. Lee, Y. S. Kim, “The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18, no.2, pp.95-109, 2017.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89268>

제 남 주(Nam Joo Je)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9월 ~ 2016년 8월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9월 ~ 2017년 2월 : 경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임산·분만, 수태 전 관리, 여성 건강, 성교육, 생명의료윤리

박 미 라(Meera Park)

[정회원]



- 2010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2013년 3월 ~ 2015년 12월 :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신생아관리, 임산·분만, 모유수유, 성교육, 생명의료윤리